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전년대비 상승

지난해 종합만족도 7.57점... 학생만족도 가장 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의 교육정책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57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

로 진행됐으며, 도내 초·중·고교 학생 3,058명과 학부모 1,762명, 교직원 3,315명 등 총 8,13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별 만족도는 학생이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 7.75점, 교직원 7.23점 등의 순이었다. 조사항목별로는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실(8.50)과 학교안전(8.21), 학교

생활만족도(8.09)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놀이방(8.69), 수업혁신(8.11), 학교생활만족도(8.09)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교직원은 유아교육(8.94), 방과후 및 야간자를 선택권(8.35), 등교시간 늦추기(8.2) 등에서 만족도가 컸다. 반면 학생은 진로진학(6.75), 학부모는 교육정책전반(7.19), 교직원은 교권존중(5.89) 항목에 최저점을 줬다.

지역별로는 장수(8.00)·김제(7.96) 순창(7.92)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전주(7.40)·완주(7.45)·남원(7.52)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만족도에 있어서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여건과 규모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교권존중 및 진로진학 등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어렵고 힘들어도 손 맞잡고 기해년 힘차게 열어가자”

전북대, 시무식 갖고 힘차게 시작

전북대학교가 2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고통호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보직교수, 구성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19년을 힘차게 열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표창 전수식과 함께 모두가 손을 맞잡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우수 공무원 표창장 전수식에서는 김태성 팀장(산학협력단)이 2018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이병학 팀장(국제협력부)을 비롯해 백유선 팀장(재무과), 박재오 직원(재무과), 정상무 직원(총무과), 채수임 팀장(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 최지현 팀장(총무과), 송양희 팀장(홍보실), 배옥부 직원(교무과), 조주현 직원(평가지원과), 강제희 직원(재무

과) 등이 각 분야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통호 총장 직무대리의 시무식사와 전 구성원이 손을 맞잡고 새해 덕담을 전하는 신년 인사회 등이 진행됐다. 고통호 총장 직무대리(교무처장)는 “지금은 1년 대학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30년 숙원인 약대 유치와 정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중요한 일들이 눈앞에 와 있는 시기”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72년 역사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듯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정은성 기자

전북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 합격자 발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10시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548명 (일반 544명, 장애 4명) 및 제 2차 시험 장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에 발표했다.



전북체육회가 2일 시무식을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체육'을 일궈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381명 (일반모집 355명, 장애 26명)의 1.5배수를 선발해 일반 26과목에 544명, 장애 4과목에 4명, 총 548명이며, 또한 개인별 합격여부는 합격자 발표 10시 이후 중등교원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2차 시험은 16일 예·체능 실기평가, 22일 수업실연 23일 교직적성심층면접을 실시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험장에 시험시작 40분 전에 입실해야 하고 2차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과목별 합격자 명단과 2차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시합/채용정보란)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언제 어디서든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체육 만들자”

도체육회, 시무식서 새해 계획 밝혀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일 시무식을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체육'을 일궈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 체육회 임직원들은 이날 새해 계획과 포부 등을 밝히며 스포츠 강도(強道)에서 스포츠 선진도(先進道)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또 지난해 열렸던 제99회 전국체육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만큼 오는 5월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역대 성공 체육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북 체육과 전라북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라북도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도민들의 행복증진에 있다”며 “도민 누구나 체육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가가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체육회와 경기종목단체 간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전북 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며 “올 한해도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가 최근 고은미래의원 과 본교 학생·교직원 대상 의료진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상생 위한 활동 본격 추진

전주대-고은미래의원, 의료기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고은미래의원 전주분점·송천점·효자점·군산점·남원점과 본교 학생과 교직원 대상 의료진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과 고은미래의원 임건록 대표원장, 송천점 이기태 원장, 효자점 김광민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의 양해각서는 ▲의료기술정보 교류 및 의료봉사 지원과 협력 ▲전주대 학생과 유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진료 지원 ▲기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활동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협약을 계기로 국제학생을 포함한 전주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전북지역 고은미래의원에서 약 20% 상당의

비급여를 감면받게 된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가치를 전하는 향토기업, 고은미래의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건록 대표원장은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대와 협약을 맺게 되서 영광이며, 고은미래는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은미래의원은 전주에서 개업한 이후 안양, 청주 등 전국에 11개 지점을 오픈했으며, 전북지역에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후원 및 의료지원, 클린 타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허강무 교수 법무부 장관상 수상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교수는 2014년 상가권리금법제화 정부합동 TF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 활동하며 상가임대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

간을 기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허 교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문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편, 허 교수는 지난 2012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2014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